

# 독립정신

우리는 해방 후 백범의 행적에서도 초심과 정도의 순결성을 다시 만나게 된다. 그에게 신탁통치와 분단정부는 사도일 수밖에 없었다. 그 길이 비록 현실적이라 해도 민족사의 사도인 분단을 백범은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 시점에 분단이라는 현실추종론자들에게 “정도냐 사도냐”의 논리를 거침없이 제기하였다. 백범의 초심과 중심의 중심이 이랬다. 현실적이나 비현실적이나보다 그 길이 정도냐 사도냐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대로 행동했던 백범의 사상은, 민족해방전쟁을 지도한 혁명가이면서 ‘문화국가론’을 제시한 선구자의 길이기도 하다.

- 머릿글에서



## 일생에 한 번은 임정로드를 걸어라

임시정부 대가족은 특하면 퍼지는 버스와 장정들이 완력으로 끌고 가야 했던 배를 타고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여정을 27년간이나 이어가야 했다. 중국 땅 어디에도 그들이 발붙일 곳은 없었다. 늘 적의 공습이 기다리고 있었고, 중국인들은 망국노(亡國奴)라 부르며 조롱했다. 그들은 얼마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 독립운동가들을 존경하는데 무슨 구체적이고 거창한 이유가 필요하겠는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내 나라, 내 땅, 내 집을 찾아주신 데 감사할 따름이다.

임시정부기념관, 법적 근거 확보해야 ..... 10

임정 학술회의 지상중계

절실한 6·10만세운동의 ‘복권’ ..... 16

롯데장학재단-민화협 장학생 선발기 ..... 20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의 자주독립정신과 정통성을 이어받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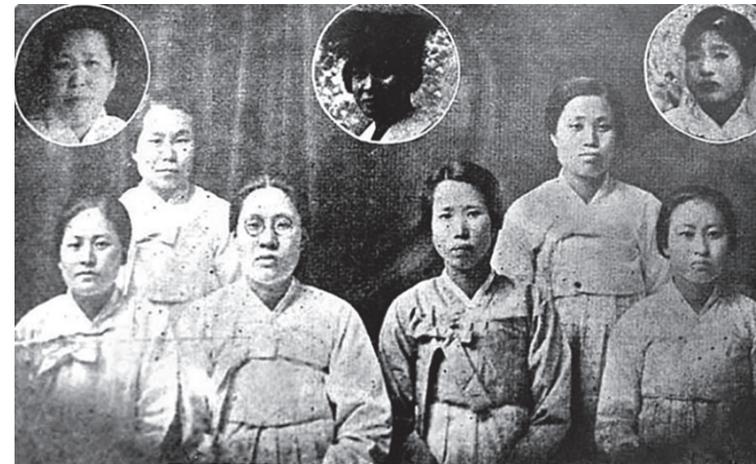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원희복  
편집위원 | 곽태원, 박덕진, 권혁주, 이상혁  
편집·디자인 | 대관인쇄

우 03173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길 19 로얄빌딩 602호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7837@daum.net  
홈페이지 : kopogo.kr

- 03 이 달의 독립운동\_ 대한민국애국부인회(大韓民國愛國婦人會) | 편집부
- 04 머릿글\_ 백범의 길, 다시 찾는다 | 김삼웅
- 06 백범로드\_ 일생에 한 번은 임정로드를 걸어라 | 김경준
- 10 학술회의 자상중계\_ 임시정부기념관, 법적 근거 확보해야 | 편집부
- 14 정정화·김자동 회고록 일본 출판기념회\_ 동경에 알려진 독립운동가 이야기 | 이규수
- 16 6·10만세운동\_ 절실한 6·10만세운동의 '복권' | 이승철
- 19 삼균주의 학술회의\_ 민주공화정을 위한 삼균주의 이념적 가치  
대한독립선언 102주년 학술대회 부산에서 열려 | 편집부
- 20 독립운동가 후손 장학생 선발기\_ 생생한 사례가 입증한 독립운동 후손의 삶 | 원희복
- 23 서대문형무소\_ 홍면옥의 3·1운동과 서대문형무소 | 편집부
- 24 청년에게 듣는다\_ 21세기 대한민국의 독립정신 제2기 청년위원단의 다짐 | 최범준
- 26 우리 고장의 독립운동\_ 부안의 독립운동 ; 동학농민혁명과 의병을 중심으로 | 편집부
- 30 임정서거\_ 『길 위에서 만난 독립운동가』  
『삼국지』  
『나의 독립』- 독립운동가의 시와 말씀을 글씨로 보다  
『항일여성기록』  
| 편집부
- 32 독립정신 이모저모 | 편집부
- 35 회원동정 | 편집부

## 대한민국애국부인회(大韓民國愛國婦人會)



십자부장 이정숙, 윤진수, 결사부장 백신영, 이성완, 교제부장 오현주, 서기 신의경, 부서기 김영순이었다.

애국부인회는 민주주의 이념의 확고한 기초 위에 항일여성운동을 전개하였다. 활동한 지역 두 달 만에 약 6천 원이라는 거액의 군자금

대한민국애국부인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후 이를 지원하면서 그 산하에서 독립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6월에 조직된 항일여성단체다. 1919년 6월 오현주, 오현관, 이정숙 선생 등이 3·1 운동 투옥 지사 옥바라지를 목적으로 조직한 혈성단부인회와 최숙자, 김희옥 선생이 조직한 대조선독립애국부인회가 대한민국임시정부 군자금 지원을 위해 통합, 단체명을 대한민국애국부인회(이하 애국부인회)라 명명했다.

서울, 평양, 부산, 대구, 원산, 전주, 청주, 진주 등 여러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고 각 지부에 결사대를 둔 애국부인회는 부인들을 각성시켜 국권과 인권의 회복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애국부인회의 핵심 인물은 회장 김마리아, 부회장 이해경, 총무 황에스더, 재무장 장선희, 직

다. 마찬가지로 두 달 만에 백 수십 명의 회원을 규합하였는데, 교회 지도급 여성과 여교사·간호사 등이 주축을 이루었다. 그 중 간호사가 가장 많았던 것은 독립전쟁에서 백의천사로 활약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한 간부의 배신으로 서울과 지방의 간부 및 회원들이 고등계 형사들에 의해 일제히 체포되었다. 체포된 사람 중 회장인 김마리아와 총무 황에스더는 3년, 이정숙, 장선희, 김영순은 2년, 유인경, 이해경, 신의경, 백신영은 1년을 선고받았다. 애국부인회 회원들은 일제의 취조 심문에서 “한국인으로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 연호는 모르고 서력만 안다”라고 답변하는 등 철저한 항일독립정신의 투지를 보여주었다.

## 백범의 길, 다시 찾는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독립운동과 해방정국에서 백범 김구선생의 족적을 지우면 스토리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의 존재로 인해 우리는 독립운동사에서 자존을 찾고 분단사에서 그나마 위안을 삼는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어느 정도 현실에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아들의 편지를 받고 다음과 같이 썼다. “천하에는 두 가지 큰 기준이 있는데, 옳고 그름의 기준이 그 하나요, 다른 하나는 이롭고 해로움에 관한 기준이다. 이 두 가지에서 네 단계의 큰 평등이 나온다. 옳음을 고수하고 이익을 얻는 것이 가장 높은 단계이고, 둘째는 옳음을 고수하고도 해를 입는 경우이고, 세 번째는 그름을 추종하고도 이익을 얻음이고, 마지막 가장 낮은 단계는 그름을 추종하고 해를 보는 경우다.”

백범은 굴곡진 현대사에서 항상 시대 가치를 찾고 정도를 택하였다. 유교의 타락에 대응하여 동학에 들어가서 소년접주가 되고, 일제의 침략에 맞서 의병이 되고, 명성황후 시해에 분개하여 일본밀정 스킨다를 죽이고, 국민계몽운동과 학교를 세우고, 공화주의 신민회에 들어가고, 안악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고, 탈옥 후 중국에 망명하여 27년 동안 임시정부를 이끌었다. 해방 후 환국하여 반분단 통일정부 수립에 정진하다 1949년 6월 이승만 수족인 88구락부의 음모로 암살되었다.

백범의 생애에 일관되게 흐르는 ‘수맥’은 ‘정도론(正道論)’이다. 백범은 철저히 사도(邪道)를 배격하고 정도를 택하였다. 그가 맞은 시대는 고난과 격동의 연속이었다. 그런 속에서도 평탄한 길도 있었고, 안일한 길도 있었다. 현실 노선도 있었고 비현실 노선도 있었다. 타협 노선도 있었고 침묵의 길도 있었다.

그때마다 백범은 망설이지 않고 정도를 택하고 그 길을 걸었다. 그 길이 비록 비현실적이고 고난의 길이라 해도 마다하지 않았다. 70 평생에 걸쳐 왕조시대, 망국, 독립운동, 임시정부, 해방, 분단, 신탁통치, 정부수립으로 이어지는 험난한 도정에서, 그는 한 번도 민족적인 운명과 개인적인 운명을 분리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한 번도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정도에서 비껴가지 않았다. 말이 쉽지, 험난한 근현대사의 고깃길에서 올곧은 의지와 신념 없이는 결행이 어려운 길이었다.

민족적인 운명과 개인적인 운명을 분리시키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백범이다. 흔히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선공후사(先公後私)를 내세우고 멸사봉공(滅私奉公)을 다짐하지만, 사심(私心)과 공심(公心)이 뒤바뀌는 경우를 자주 지켜보게 된다. 사심이 앞을 가려 공심의 눈을 멀게 만드는 것이다. 사회지도층 인사 중에는 초심(初心)은 좋아 보였는데 종심(終心)은 형편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백범은 상민 출신으로 입신하여 임시정부의 주석이 된 후에도 초심과 종심이 다르지 않았고, 사심과 공심이 뒤섞이지 않는 비범한 삶을 살았다. 세계식민지 역사상 가장 악독한 일제와의 투

쟁에서 한 번도 한눈을 팔거나 사욕을 취한 적이 없었다. 오로지 민족해방과 통일조국 건설이라는 대의와 정도를 당당하게 걸었다.

우리는 해방 후 백범의 행적에서도 초심과 정도의 순결성을 다시 만나게 된다. 그에게 신탁통치와 분단정부는 사도일 수밖에 없었다. 그 길이 비록 현실적이라 해도 민족사의 사도인 분단을 백범은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 시점에 분단이라는 현실추종론자들에게 “정도냐 사도냐”의 논리를 거침없이 제기하였다. 백범의 초심과 종심의 중심이 이랬다.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보다 그 길이 정도냐 사도냐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대로 행동했던 백범의 사상은, 민족해방전쟁을 지도한 혁명가이면서 ‘문화국가론’을 제시한 선구자의 길이기도 하다.

이승만과 그의 수하들에게 정계를 은퇴한 노혁명가의 존재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임시정부에서 탄핵을 당하고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한 바 없는 이승만 대통령은 백범에게 무진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해방 후 김구·김규식·여운형 등의 남북협상과 통일정부 수립론에 비해서 자신의 단독정부론이 명분에서도 밀린다는 점을 알았다. 그래서 백범에 대한 심한 콤플렉스와 적대감을 갖게 되었다. 독선과 아집이 강한 이승만은 김구와의 공존이나 정권교체는 안중에 없었다. 처음부터 그는 장기집권을 구상하고, 여기 저해되는 인물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제거했다.

이승만의 수하에는 일제에 충성을 다하다가 일제 패망으로 한때 숨을 죽이고 있다가 그가 집권하면서 다시 요직을 차지한 충성파들이 우글거렸다. 이들은 하나같이 이승만의 충복이면서 김구에는 적의를 품고 있었다. 그 충복들의 수뇌가 거개 88구락부의 멤버들인데, 이들은 조선총

독부 시절과 미군정 시기에 거느렸던 막강한 인맥·조직·정보·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승만의 주변에는 주로 이런 인물들이 포진하고, 이들은 주군(主君)의 심기와 심중을 귀신같이 꿰면서 먹잇감을 찾았다. 당시 이승만의 심기를 가장 불편하게 만든 것은 반민특위였다. 헌법 규정에 따라 특별법이 제정되고 특위가 구성되어, 정부와 군경에 따리를 튼 자신의 수족들이 하나씩 체포되자 이승만은 정치적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이승만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회한 책략가였다. 또 국민의 시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경찰, 헌병대 등 공안팀을 동원하여 먼저 국회의 진보적 민족주의 인물들을 처내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른바 ‘국회프락치 사건’이다. 1949년 5월부터 김약수 국회부의장을 비롯하여 노일환 등 현역의원 13명을 “북한 공산집단의 프락치로서 국회에 잠입하여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했다.

국회의원들이 불안·공포에 떨고 있을 때 6월 6일에는 경찰을 동원하여 활동 중인 반민특위를 짓밟고 요원들을 체포한 것이다. 그리고 6월 26일에 백범이 암살되었다. 암살사건 후 제2차 국회의원 구속사건이 벌어졌다. 정권수뇌부는 1차 국회프락치 사건→반민특위 해체→김구 암살→2차 국회프락치 사건으로 이어지는 정교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극히 잘 짜인 각본이었다.

독립운동의 주역인 백범의 암살과 반민특위를 해체한 1949년 6월의 폭거로 우리 현대사는 친일·분단·외세추종세력이 주류가 되고 민족정기와 역사 정의가 전도되었다. 그로부터 7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저들은 여전히 막강하다.



## 일생에 한 번은 임정로드를 걸어라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순례길 위에서의 기억 -



김경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

지난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였다. 당시 작은 출판사에서 기획자로 일하던 나는 오마이뉴스 기자들과 함께 국내 최초 임시정부 여행가이드북 『임정로드 4000km』를 출간한 바 있다. 책이 출간된 후, 많은 시민들이 상하이로, 난징으로, 충칭으로 임시정부의 흔적을 찾아 순례길 여행에 올랐다. 너 나 할 것 없이 길 위에서 찍은 인생샷을 SNS에 올리는 것을 보면서 기획자로서 큰 보람을 느꼈다.

해가 지나고 2020년이 밝았다. 그 사이 내 삶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임정로드 4000km』를 만드는 과정에서, 잠시 내려놓았던 역사공부의 꿈을 다시 꾸게 된 것이었다. 결국 나는 퇴사와 함께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다. 그러나 막상 진학을 결정한 뒤에도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다시 공부의 길을 걷는 게 맞는 걸까 번민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때마침 백범 김구 선생의 뜻을 계승하고자 만들어진 시민단체 ‘청년백범’에서 5박



충칭 연화지 임정청사 앞에서

6일의 임정로드 답사단을 꾸린다는 소식을 접했다. 소식을 접하자마자 무조건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인생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옳은 것인지 그 답을 임정로드 위에서 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는 청년 백범 답사단의 일원으로 임정로드 순례길에 오르게 되었다.

답사단은 2020년 1월 9일부터 5박 6일 동안 중국 광저우(廣州)-류저우(柳州)-쑤이(遵義)-치장(綦江)-충칭(重慶)에 이르는 루트를 탐방했

다. 한인 청년들이 조국 독립의 꿈을 안고 군사 훈련을 받았던 광저우의 황포군관학교, 임시정부와 대가족들이 적의 공습을 피해 힘겹게 넘어 가야만 했던 72굽이산길 등 대륙 곳곳에 임시정부와 우리 한인 애국지사들의 흔적이 배어있었다. 어느 한 군데 놓칠 수 없는 소중한 우리 역사의 흔적들이었지만, 지면의 한계상 특히 인상 깊었던 장소 몇 군데를 소개하고자 한다.

### 시멘트벽에 새겨진 다섯 글자, ‘김원봉 집터’

답사 5일차에 찾은 충칭의 대불단정가(大佛段正街) 172호, 바로 약산 김원봉 장군의 집터였다. 그러나 답사단 인솔자가 "우리가 오는 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고 했을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주변 풍경이 달라지고 있었다. 『임정로드 4000km』 편집 과정에서 사진으로 현장을 봤을 때보다도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이미 주변 건물은 다 헐렸고, 약산의 집터 역시 헐리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었다. 모두들 철거되기 전에 눈으로나마 담아두자는 생각으로 구석구석 훑어보았다.

안타까운 마음에 벽을 더듬어 보는데 한글로 새겨진 ‘김원봉 집터’ 다섯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아마 이곳을 찾아왔던 그 누군가도 독립투사가 살았던 집터가 철거될 운명에 처한 현실이 안타까웠나 보다. 시멘트벽에 한글로 김원봉의 집터를 새기고 간 것이다. 그 글자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다. 혹여라도 누군가 이곳을 찾을 한국인들을 위해, 표지석 하나 세우지는 못할망정 이



독립전쟁을 잊지 말자고 누군가 새겨 놓은 “김원봉 집터” 다섯 자

곳이 조국독립을 위해 싸웠던 한 애국지사의 집터였다는 사실을 시멘트벽에라도 남기고자 했던 그 절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이 집터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다. 당시 이 건물이 헐리고 나면 지하철역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그 앞에 이곳이 약산의 집터였다는 작은 표지석 하나만이라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화상산 한인묘지’

가슴 먹먹함은 다음 코스인 충칭·화상산(和尚山) 한인묘지에서 극대화됐다. 이곳은 독립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눈을 감은 임시정부 요인들과 그 가족들이 잠든 공동묘지다.

이곳에 묻혔던 대표적인 분들을 소개하자면 광낙원(김구 선생 모친), 김인(김구 선생 장남), 송병조(임시의정원 의장), 차리석(임시정부 비서장), 이달(조선의용대 본부 선전조장), 박차정(조선의용대 부녀복무단장) 선생 등이 있다. 이외에도 20명에 달하는 조선의용대 대원들 역시 이곳

에 잠들어 있다고 한다.

1948년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온 김구 선생은 아들 김신을 보내 화상산 묘역에 잠든 한인 유해들의 국내 봉환에 착수한다. 이 과정에서 곽낙원, 김인, 차리석 선생 등 일부 독립운동가들의 유해가 돌아왔다. 하지만 다른 분들의 유해를 모셔오려고 했을 때는 이미 한·중 간 교통이 끊겨 버렸다. 그래서 화상산에는 여전히 독립운동가들과 그 가족들의 유해가 해방 75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상황이다.

우리 갔을 당시 화상산의 상황은 심각했다. 1990년대 이후로 중국 당국이 묘지를 밀어버려 묘의 흔적이 사라졌으며, 그나마 유해가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땅조차도 공사장으로 변해 굴삭기가 오가고 있었다. 그런데 현장을 답사하면서 유심히 지켜본 결과, 유해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한 발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했다.

나는 2014년~2016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유해발굴병으로 군 복무를 하면서 6·25 전사자들의 유해를 발굴한 바 있다. 당시 60여 년이 지난 유해들이 지표면과 땅속 깊은 곳에서 발굴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온전한 방식으로 매장되지 못하고 산화한 유해들의 경우 발굴 가능성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당장이라도 야삽 하나 들고 뛰어 올라가 땅을 파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눌러 담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야만 했다.

귀국하자마자 화상산 발굴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함께 국방부·국가보훈처 등 유관 부처에도 민원을 넣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공개서한까지 띄웠다. 그러나 보훈처는 “관련 증거를 찾아서 제시하라”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했고, 청와대 역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당시 우리가 갔을 때 이미 굴삭기가 왔다 갔다 하던 상황이었는데 이곳 역시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알 길이 없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와 협의하여 현장에 조사단을 파견해야 할 것이다.

### ‘백범의 계단’에 서다

답사 마지막 날, 우리는 마침내 임정로드의 종착지, 충칭 연화지(蓮花池)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로 향했다. 우리는 버스 안에서 작은 태극기를 들고 반주에 맞춰 독립군가를 힘차게 부르며 이동했다.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버스는 임시정부



백범의 계단(충칭 연화지 임정청사)



치장박물관의 임정 요인 사진 앞에서

청사로 들어가는 골목길 앞에 도착했다. 걸으면 걸을수록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여덟 글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나는 청사를 향해 걸어가며 『돌베개』의 한 구절을 생각했다. 청년 장준하는 청사 위에 휘날리는 태극기를 보고 온몸이 굳었다고 했다. 그것은 기쁨, 서글픔, 노여움 등 다양한 감정이 뒤섞여 당신도 모르게 나타난 몸의 반응이었을 것이다. 나는 청사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며 그 당시 장준하의 감정을 느끼려 노력했고, ‘부정시립 국민한대’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27년 동안 대륙 곳곳을 전전하며 힘겹게 싸워나가야만 했던 임시정부 요인들의 설움, 6천 리 장정 끝에 우리 정부에 도착한 식민지 청년들의 환희 등이 느껴져 나 역시도 마치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은 느낌이였다.

우리는 연화지 청사의 상징과도 같은 ‘백범의 계단’에 섰다. 환국 직전의 김구 주석과 2017년 이곳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곳에서 굳은 표

정으로 사진을 찍었다. 아마 우리 손으로 광복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에, 여전히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에 그랬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러나 나는 웃었다. 앞으로 더 좋은 나라가 탄생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 백문이불여일견, 일생에 한 번은 임정로드로 떠나라

이로써 5박 6일의 임정로드 탐방이 끝났다. 우리야 비행기와 고속철도라는 현대 문명의 도움을 얻어 편히 유람을 다녀온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임시정부 대가족은 특하면 퍼지는 버스와 장정들이 완력으로 끌고 가야 했던 배를 타고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여정을 27년 간이나 이어가야 했다. 중국 땅 어디에도 그들이 발붙일 곳은 없었다. 늘 적의 공습이 기다리고 있었고, 중국인들은 망국노(亡國奴)라 부르며 조롱했다. 그들은 얼마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 독립운동가들을 존경하는데 무슨 구체적이고 거창한 이유가 필요하겠는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내 나라, 내 땅, 내 집을 찾아주신 데 감사할 따름이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한다. “독립운동가들이 한 게 뭐가 있냐”, “결국 미국의 도움으로 얻어낸 독립 아니냐”고. 나는 그들에게 백 마디 말 대신 그저 임정로드를 한 번 걸어볼 것을 권하고 싶다. 직접 걸어보면 안다. 과연 우리의 독립이 남의 손에 의해 얻어진 것인지 말이다.



## 임시정부기념관, 법적 근거 확보해야

2021년 4월 9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국가보훈처와 광복회, 시민모임 독립에서 후원하는 학술회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가 개최되었다. 회의는 내일신문 지하 3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학술회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청중 없이 진행되었다. 또 직접 발표할 때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여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청중 없이 진행된 학술회의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



내일신문 강당에서 열린 임정 학술회의

1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오후 5시까지 4시간 가량 진행되었고, 각 발표는 35분, 토론은 15분씩 배정되었다. 회의 순서는 김희곤 안동대 명예교수의 제1발표, 최기영 서강대 교수의 제1토론,

박소현 서울과기대 교수의 제2발표, 기량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장의 제2토론, 최호근 고려대 교수의 제3발표, 배성호 선생의 제3토론으로 이어졌다. 좌장은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각 발표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위상·역할 및 운영·사회교육 활동을 주제로 담았다.

각 발표와 토론에 앞서 기념사와 축사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영상으로 대체했다. 기념사는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축사는 이종찬 국립대한



기념사와 축사를 맡은 김자동 회장(좌), 이종찬 건립위원장(우)

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장이 각각 영상을 제작해 보내주었다. 두 영상은 사업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학술회의 전체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희곤

김희곤 교수

김희곤 교수의 제1발제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위상과 역할'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희곤 교수는 임시정부기념관의 위상으로 네 가지를 주목하였는데, ①국가사의 정맥을 세우는 기관(국가의 정통성) ②대한민국의 기원을 계승하는 공간 ③세계사 차원에서 한국 독립운동 가치 표현 공간 ④한국사의 발전성을 증명하는 공간이라고 제시했다.

김희곤 교수의 발표에 이어진 최기영 교수의 제1토론은 다소 무겁게 진행됐다. 최기영 교수는 김 교수에게 두 가지 질의 사항을 건넸다. 하나는 네 가지 위상과 역할은 다른 독립운동 관련 기념관들과 공통적인 지향점이 될 수 있기 때



최기영 교수

문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만이 가질 수 있는 독창성을 두면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른 하나는 조직과 사업에 대한 부분이었다. 최기영 교수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박물관과 연

구기관의 기능 즉, 전시, 연구, 교육의 기능을 통해 기념관의 역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과 기능이 맞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박소현 교수의 제2발제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에 대한 제언'이란 주제로 시작됐다. 발표의 핵심은 '과거 기념관들이 어떻게 지어져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임시정부기념관을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였다. 박 교수는 이전까지 기념관들이 세워진 역사를 짚어주었다. '관 주도의 사립박물관'이라는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고 국립기념관인 임시정부기념관은 '국립'이기 때문에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국립기념관을 포함해 곧 지어질 임시정부기념관이 국립기념관으로서 법적인 근거와 규정이 확보되어야 함을 짚어주었다.

특히 '국립'이라는 단어가 권위적이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허용하는 개념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5년에 발표된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과 역할을 위한 유네스코 권고 사항, 국제박물관협회의 회의 2018년 성명에 따라 임시정부기념관이 자본의 논리에 운영되지 않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



박소현 교수

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제2토론자 기량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장은 앞서 발표한 박 교수의 설명에 공감하면서, 박 교수의 제언을 보완할 만한 사항을 제시해 주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립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기념관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이상적으로 삼을만한 모델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주제로 한 기념관의 기능과 역할을 깊이 고민해야 함을 지적했다.

여기에 현행 평가인증제도를 활용한 기념관 운영의 활성화를 소개하고 이러한 객관적 평가 지표를 활용해 질적 수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5분의 휴식시간을 갖고 이어진 최호근 교수의 제3발제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사회교육 활동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최호근 교수는 임시정부기념관이 경계해야 할 부분을 제시해 주었다. '톱다운(Top-Down) 방식의 기념', '멀리서 우러러 보는 과잉 추모 방식의 기념', '기념관의 의미와 맞지 않는 동상과 무덤에 갇힌 기념', '회고 지향에 치중되어 미래 세대에 대한 일방적 의미 전달' 등이었다. 그래서 최 교수는 국내외 모범적인 기념관 사례

들을 들어 임시정부기념관을 통해 어떤 교육 활동을 해야 할지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배성호 선생의 제3토론은 현장 교사의 관점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게 진행되었다.

먼저, 핵심 관람객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이 기상 악화 시 어린이들이 도시락을 먹을 장소가 없어 곤란했던 점을 사례로 들어 이를 개선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관람객을 배려하고 이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현직 교사들과 협업을 통해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을 추천했다. 초등학생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섬세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일방적인 전시가 아닌,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념관이 되기를 희망했다. 임시정부기념관이 단순히 도식적인 내용에 갇힌 것이 아닌, 소통하고 '질문'이 있는 전시가 되기를 희망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참여형 전시가 되길 주문했다. 과거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진행한 '조국으로 가는 길' 전시를 사례로



최호근 교수



기량 전시운영과장

를 소개했다. 그리고 발표자



배성호 교사

들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정서적 공감을 나누는 것을 기념관 건립과정에서 언급한 '앞으로의 100년 역사'를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임을 조언했다.

제3토론을 끝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

서는 지정된 발표 및 토론시간에서 나누지 못한 질문과 답변들을 주고 받았다. 좌장 이만열 교수의 사회 아래 여섯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기념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다. 여섯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가장 궁금했던 사항은 임시정부기념관이 얼마나 준비가 되고 있는지 현재 개략적인 상황이었다. 이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희곤 교수가 현재 상황을 소개했다. 그리고 발표자



좌장 이만열 교수

와 토론자들은 실효적인 측면에서 기념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실현되기를 희망했다. 특히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전시, 수많은 문장으로 구성된 전시가 아니라 직접 관람하고 고민하며 소통할 수 있는 전시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할 만한 관련 행정적인 제도와 규정도 조속히 보완되기를 기대했다. 



발제 및 토론



종합토론

## 동경에 알려진 독립운동가 이야기



이규수  
일본 히토쓰바시대학  
한국학연구소 교수

2021년 4월 10일, 동경에서 조출한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장강일기』와 『영원한 임시정부 소년』의 일본어판 번역 출판 기념회이다. 출판기념회는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을 맞이하여 기획되었다. 원

래는 김자동 회장님을 모시고 동경 현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아쉽게 온라인을 통해 한일 양국의 관계자가 모였다. 열기는 뜨거웠다. 기념회에서는 일본어판 번역자와 편집자를 비롯해 약 60여 명의 관계자가 번역 출간이 지닌 사회적 의미와 『장강일기』의 주인공, 수당 정정화 여사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역사적 발자취를 되새겼다.

번역 출판의 계기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히토쓰바시대학 한국학연구소가 주최로 시민 강좌, 〈정정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안주인〉을 동경 YMCA에서 개최했고, 그 자리에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김선현 이사님도 함께 하셨다. 이를 계기로 한국학연구소에서는 한국의 독립운동가, 특히 한 여성의 파란만장한 삶의 행적을 일본 사회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국의 자주독립과 민

족해방을 위해 헌신한 선각자들의 요람인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해방된 조국으로 귀환 시까지 생사를 넘나들며 온몸으로 나라 사랑을 실천했던 여성 독립운동가의 일대기는 감명 그 자체였다.

번역 출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억〉 시리즈로 기획되었다. 여기에는 『장강일기』와 함께 임시정부 소년으로 몇 안 되는 생존자 가운데 한 사람인 김자동 회장님의 회고록을 간행하는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임시정부의 분투와 내밀한 속사정, 해방 공간의 어지러움과 한국 전쟁, 엄혹했던 군사정권 시절 이야기 등을 담고 있는 『영원한 임시정부 소년』은 한 개인의 기억을 뛰어넘어 한국 현대사의 소중한 사료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1919년 대한제국 대신이었던 할아버지 동농 김가진의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망명으로 시작된 한 가족의 독립운동 이야기는 아버지 김의한(건국훈장 독립장)과 어머니 정정화(건국훈장 애족장)의 체험과 기억으로 일본 사회에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되었다.

번역은 제일 역사학자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원문에 충실하면서 일본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인물과 단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한 각주를 달았다. 번역자 스스로도 번역 과정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영원한 임시정부 소년』을 번역하신 송연옥 선생님(아오야마대학 명예교수)은 외부에 약속이 있는 날에는



일본어 번역 출간된 도서

한시라도 빨리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는 에피소드를 전했다. 김자동 회장님의 상하이의 소년 시절 기억과 해방 이후 혼란과 격동의 시기를 이겨낸 체험을 담은 한편의 파노라마를 빨리 번역해서 일본 사회에 알려야 한다는 역사가로서의 사명감 때문이었다. 출판사는 한국 관련 도서를 다수 간행한 아카시서점에서 담당했다. 출판에 이르기까지는 편집자의 꼼꼼한 교정 작업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장강일기』와 『영원한 임시정부 소년』의 일본어판은 관심 속에서 일본 사회에 선보이게 되었다.

출판기념회는 기념 영상 감상과 김자동 회장님의 일본어판 간행에 대한 소회, “나의 인생을 이야기하다”라는 기조 강연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번역을 담당하신 선생님들의 소감이 이어졌다. 『장강일기』를 번역한 강신자 선생님은 이 책은 임시정부의 기억을 이야기하면서 결코 ‘인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커다란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작은 목소리로 전해져온 사람들의 기억’으

로 우리들 마음에 전해졌다는 소감을 말했다. 송연옥 선생님은 『영원한 임시정부 소년』을 ‘소년의 기억의 식탁으로부터 시작된 한국근현대사’라고 평가했다. 또 김자동 회장님의 민주화 투쟁의 과정은 비판적인 현실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선비’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소회를 피력했다. 출판 기념회 마지막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신을 관철한 모자 2대의 고투에 가득한 현대사’라는 서평을 『도서신문』 2020년 9월 19일자에 게재한 와타나베 나오키 교수(무사시대학)의 발표로 마무리되었다.

출판기념회는 끝났지만 이후에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다. 『장강일기』에 드러난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의 궤적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는 편집 담당자의 감상, 한국 독립운동가의 모습이 일본 사회에 더욱 널리 알려져 역사 왜곡이 시정되어야 한다는 젊은 대학생의 소감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모두 『장강일기』와 『영원한 임시정부 소년』의 일본어판이 남긴 하나의 작은 성과일 것이다.

한 가족의 ‘패밀리 히스토리’로 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억은 많은 역사적 교훈과 앞으로의 과제를 남겨놓았다. 올바른 역사 인식과 분단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우리는 “아무리 못났더라도 국민이 하나, 민족이 하나라는 사실”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장강일기』와 『영원한 임시정부 소년』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비전으로 소중하게 일구어 나가야 하는 역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 절실한 6 · 10만세운동의 ‘복권’

이승철  
(사) 6 · 10만세운동 기념사업회 상임이사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지난 5월 1일 이메일이 하나 왔다. 미국 로스 앤젤레스에 사는 손재호 씨의 글이었다. 자신을 제2차 6 · 10만세운동에 협성학교(광신고교 전신) 학생대표로 참여했던 손병석 선생의 손자라고 소개하면서, 6 · 10 독립만세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데 대해 축하한다는 내용이였다. 바로 답장을 보내자 다음날 이메일이 도착했다.

재호 씨는 가족들의 기억과 노력, 단편적인 사회활동에 관한 신문 기사 등을 토대로 2014년 할아버지 일대기를 책으로 출간했다고 밝혔다. 재호 씨는 출간의 변으로 ‘잊혀져가는 역사의식을 현실적으로 깨달아 젊은 세대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원가입 등 기념사업회 참여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재호 씨의 글에는 집안에 얘기로만 내려오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복구할 때 느꼈던 참담함이 그대로 녹아 있었다.

손병석 선생은 ‘제2차 6 · 10만세운동계획’에 참여했다가 붙잡혀 기소유예로 풀려난 뒤, 조선고학생 단체 ‘갈뚝회’ 회장으로 활동하다 1932년 28세의 젊은 나이로 돌아가셨다. 선생은 재호 씨 등 가족들의 노력으로 2019년 3 · 1운동 100주년에 대통령 표창 서훈을 받았다.

필자가 처음 6 · 10만세운동이 국가기념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재호 씨처럼 참담함을 느꼈다. 2019년 11월 중순 친구인 박찬승 한양대 교수(국사학)로부터 ‘6 · 10만세운동이 국가기념일이 아니다’라면서 그 작업을 하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귀를 의심했다. 3 · 1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 중 하나로 알고 있는 6 · 10만세운동이 어떻게 국가기념일에서 빠질 수 있단 말인가. 특히 6 · 10만세운동 주동자 중 상당수가 다녔고, 교내에 기념비마저 있는 중앙고 졸업생인 필자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 자신을 돌아봤다. 중학교 때부터 6 · 10만세운동이 3대 독립운동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음에도 독립운동이었다는 사실 외에는 구체적 내용과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암기식 교육의 결과라고 생각했다.

필자는 그해 1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국가기념일 지정 노력에 힘을 보탤다. 그 과정에서 느낀 참담함은 계속되었다. ‘6 · 10만세운동기념사업회’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때나 사단법인 허가 신청 등 사업회 관련 일을 할 때 ‘6 · 10만주향쟁’의 다른 이름 정도로 여기는 이가 태반이었다. 아예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흔치 않게 있었다. 형해(形骸)만 남은 6 · 10만세운동이었다. 형해만 남

은 6 · 10만세운동은 ‘잊혀진 존재’였다.

지난해 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만사지탄의 감이 있지만 당연한 조치다. 왜 잊혀진 존재가 되었을까? 역사학도가 아닌 비전문가로서 2년 반 동안 활동하면서 내린 결론은 일제의 왜곡 노력과 일제가 남긴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구자들의 한계와 의욕 부족, 그리고 우리의 무관심과 방치 등이 어우러져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일제는 1926년 초부터 3 · 1운동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순종 황제의 마지막을 앞두고 군대와 경찰, 심지어 일본 본토로부터 군대까지 동원했다. 삼엄한 일제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6 · 10만세운동이 터지자 일제는 자신들의 폭압적 식민지 지배의 실상을 감추기 위해 시위 규모를 축소하고, 공산주의와 연결시키려 했다.

해방 이후 계속되는 우리의 무관심도 한몫했다. 해방 공간에서 벌어진 좌우의 싸움에서 남로당이 재빨리 6 · 10만세운동을 자신의 공으로 가져갔다. 우파진영은 손을 놓았다. 이후 우파진영이 집권한 대한민국에서는 이름만 남은 3대 독립운동으로 관심 밖의 존재였다.

북한에서는 어떨까? 마찬가지로 일부 종파분자들이 벌인 실패한 조그만 독립운동이었을 뿐이다. 남북 모두에게 6 · 10만세운동은 천덕꾸러기였다.

6 · 10만세운동의 실제 모습은 무엇일까? 한 마

디로 일제의 철통같은 사전 대비로 규모는 작지만 이념을 뛰어넘는 민족 독립운동이다. 최근 학계의 목소리는 3 · 1운동이 종교 통합이라면 6 · 10만세운동은 이념을 뛰어넘는 민족통합 차원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이라는 데로 모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인정하는 시위 주체는 공청-천도교 구파와 조선학생과학연구회(별칭 사직동계), 그리고 이른바 ‘통동계’ 세 그룹이다. 이중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주동자 중 이병립 선생이 고려공산청년회(공청)와 연결되는 등 사회주의 계열로, ‘통동계’는 민족주의계로 구분되고 있다. 권오설 선생 등 공청-천도교 구파는 시위 사흘 전인 6월 7일 일제에 검거되는 바람에 실제 시위를 이끈 세력은 조선학생과학연구회와 ‘통동계’다.

그런데 개인적 생각으로는 시위 주축인 10대 후반, 20대 초중반의 전문학교, 고교생들을 사회주의자로 분류하는 것은 마뜩찮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민족주의적 의식 속에서 민족이 잘사는 나라를 꿈꾸지 않았을까?

조선학생과학연구회를 주도적으로 창립했을 뿐 아니라 6 · 10만세운동을 계획하고 그날 ‘대한 독립만세’를 선창했던 이선호 선생의 글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앙고보 학생이던 이선호 선생은 그 전해인 1925년 8월 28일자 동아일보 ‘자유종’란에 기고한 ‘조선의 슬픔’이라는 글에서 신흥청년회, 서울청년회 등 우후죽순처럼 단체가 생기는 현상을 경계하면서 ‘조선의 슬픔을 슬퍼 하거던 반일하든 형제와 손잡고 울어다오! 대중

의 삶을 참으로 구하여보자'라고 마무리 지었다. 이들 시위 주체 외에도 불발에 그쳤지만 글 앞에서 소개한 '제2차 6·10만세운동' 그룹이 있다. 또 상해 임시정부의 외곽 조직으로 6월 1일 중국 상선을 타고 입국을 시도하다 일본 경찰에 붙잡힌 병인의용대 대원들이 있다. 이들은 일제 밀정을 암살하고 상해 일본 총영사관을 폭파했다.

6·10만세운동이 비록 규모 면에서 3·1운동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 의미와 파장은 향후 독립운동의 방향을 바꿀 만큼 크다. 상해 임시정부는 출범부터 이념과 방법론 갈등이 벌어져 1926년 무렵에는 분열이 최고조에 달했다. 6·10만세운동은 그러한 입장에 통합의 메시지를 주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7월 상해에서 열린 6·10만세운동에 대한 연설회에서 주의와 이념을 초월한 민족적 '대혁명당'을 조직하자고 주창했다. 조선공산당 상해 임시정부의 김단야는 6·10만세운동이 천도교와 노동계, 학생 조직이 통일전선을 이뤄 추진했다면서 사회주의 운동이 아닌 순연한 민족적 독립운동이라고 규정했다. 6·10만세운동은 만주와 연해주의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이어진다.

6·10만세운동은 국내 민족세력이 뭉치는 계기가 되어 이듬해 2월 신간회 탄생으로 연결된다. 안재홍 이상재 신채호 등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인사들이 '민족유일당 민족협동전선'이라는 이름으로 신간회를 만들었다. 또 6·10만세운동으로 지방의 학생단체 결성이 촉

발되면서 광주학생운동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런 점에서 6·10만세운동은 극단적인 분열의 시대, 진영 싸움 시대에 사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6·10만세운동의 '복권'이 절실한 시점이다.

6·10만세운동의 '복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6·10만세운동에 관한 자료 조사와 정리, 연구가 전혀 안 되어 있다. 당장 기초 자료가 되는 일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록이 전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당시 일본을 비롯한 중국 미국 등의 정부 자료나 언론자료는 사실상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재원 부족과 이에 따른 연구자들의 의욕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정부 차원의 관심과 추진이 절실하다.

이는 여태껏 '통동계', 제2차 6·10만세운동 등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후세대에 알리기 위한 홍보 자료나 시스템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교과서에 6·10만세운동에 관한 간략한 소개 글이 있고 학교에서 가르치긴 하지만 수박 겉핥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6·10만세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한다. 국가기념일 지정은 더 이상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망각의 늪에서 끌어내기 위한 출발이며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 민주공화정을 위한 삼균주의 이념적 가치 대한독립선언 102주년 학술대회 부산에서 열려

편집부



4월 28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열린 대한독립선언선 선포 102주년 학술대회

(사)조소양선생 기념사업회(이사장 조인래)와 삼균주의청년전국연합회(회장 이해영)가 주최하고 삼균학회가 주관한 대한독립선언 102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4월 28일 부산에서 열렸다.

대한독립선언은 1918년 11월 중국 동북부 길림성에서 만주와 러시아 지역의 항일 독립운동지도자 39명이 발표한 최초의 독립선언서이다. 1918년 무오년(戊午年)에 선포되어 '무오독립선언서'라고도 한다. 이 선언은 이후 일본의 2·8독립선언과 서울의 3·1운동 기폭제가 됐다.

이 선언서는 조소양(1887~1959) 선생이 기초하고, 박은식, 김교헌, 김규식, 김동삼, 김약연, 김좌진, 김학만, 여준, 유동열, 이광, 이대위, 이동녕, 이동휘, 이범윤, 이봉우, 이상룡, 이세영, 이소만, 이시영, 이종탁, 이탁, 문창범, 박성태, 박용만, 박은식, 박찬익, 손일민, 신규식(신정), 신채호, 안정근, 안창호, 임방, 윤세복, 조용은, 조옥, 정재관, 최병학, 한흥, 허혁, 황상규 등 39인이 서명했다.

대한독립선언서는 "일본의 병합 수단은 사기와 강

박과 무력폭행 등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이니, 섬은 섬으로 돌아가고 반도는 반도로 돌아오고, 대륙은 대륙으로 회복하라"고 요구하고, 2천만 동포들에게는 "국민된 본령이 독립인 것을 명심하여 육탄혈전 함으로써 독립을 완성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는 대한독립선언 선포 102주년, 건국강령 선포 80주년, 대일 선전포고 8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45번째 열린 이번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민주공화정을 위한 삼균주의 이념적 가치'이다.

김성국 부산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명섭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연구교수가 '조소양의 아나키즘 수용과 반일 아시아 연대활동'을 발표하고, 김동환 국학연구소 연구원이 '대종교와 대한독립선언서'를, 김용달 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이 '조소양의 대동단결선언과 대한독립선언서 비교', 김병기 대한독립운동총사편찬위원장이 '삼균주의와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로 김창덕 한국아나키즘학회장, 이동언 선인역사문화연구소 소장, 김도형 독립기념관 책임연구원, 장우순 광복회 학술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조인래 이사장은 "대한독립선언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먼저 선포된 독립선언으로 독립선언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서명하신 서명자 독립운동가 39인은 단 한명의 변절자 없이 끝까지 독립의 최전선에서 싸웠던 지사들"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보훈처, 부산광역시, 독립기념관, (사)한중문화협회, 부산국제신문,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 조명하의사기념사업회, 백야 김좌진 장군기념사업회 등이 후원했다. 

## 생생한 사례가 입증한 독립운동 후손의 삶 롯데장학재단-민화협 장학생 선발기



원희복  
본지 편집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롯데장학재단(이사장 허성관)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이종걸)가 주최하는 독립운동가 후손 장학생 선발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독립운동가

후손 장학사업은 정부의 서훈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운동을 한 사실만으로 선발해 이념에서 자유롭다. 게다가 전 세계에 흩어진 독립운동 후손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해방 후 최초의 시도인데다, 무엇보다 장학금이 1인당 6백만 원으로 현재 독립운동 후손 장학금 중 최고액이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올해는 지난해보다 두 배나 많은 350여 명이 신청했고, 주최 측도 지난해 40명보다 많은 47명을 선발했다. 심사는 이종찬 심사위원장을 포함해 김병기 광복회 학술원 원장,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 김진 백범 김구 선생 장손자, 박도 역사작가, 심옥주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 그리고 필자 등이 다섯 차례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결정됐다.

심사기준은 성적과 혼적 등을 포함해, 가정형편 유공자 공적과 학생의 학업 계획 등을 골자

로 한 자기소개서까지 꼼꼼히 평가했다. 그러나 필자는 자기소개서를 검토하면서 나름 선발하는 기준을 가지게 됐다. 그것은 최대한 정부의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을 준다는 기준이다. 과거에는 후손 1명에게 그것도 손자까지만 보훈 혜택을 주다 보니 소외된 후손이 너무 많았다. 비록 증손자까지 혜택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소외된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현지에 정착한 후손은 우리 정부의 보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은 해외 정착 독립운동가 후손을 우선 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렇게 선발된 사람은 신현모(미국), 서영해(오스트리아), 박택룡(중국), 민궁호(카자흐스탄), 전일(키르기스스탄), 이종근(호주) 등이다. 특히 우리 독립운동을 도운 호주인 조지 루이스 쇼(George Lewis Shaw)도 외국인으로 선발됐다.

이중 서영해 선생은 필자와 인연이 많다. 프랑스에서 임정 외교행서(현 대사급)로 활약했던 서영해 선생의 손녀 스테파니가 있다. 서영해 선생은 국제연맹이 있던 파리에서 '고려통신사'를 운영하며 조선 독립을 알리다 오스트리아 여성과 결혼해 아들을 낳았다. 이후 2차대전 소용

돌이에서 아내와 헤어지고 해방 후 선생만 혼자 귀국했다.

오스트리아에서 성장한 아들은 딸 둘을 낳았고 이 손녀들은 자신의 한국 핏줄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자신이 한국인 '저널리스트 서영해'의 핏줄이라는 사실만 알았지, 한국말도 모르는 이들의 할아버지 찾기는 어려웠다. 다행히 교환교수로 갔던 김진아 교수가 2005년 필자가 쓴 서영해 선생 기사를 검색해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뒤늦게 보훈대상자로 지정됐고, 제작년 임정 100주년 행사 때 정부 초청으로 서울에 오기도 했다.

필자가 꼽는 또 다른 학생은 광복군 군의관을 했던 엄익근 선생 증손녀이다. 이 집안도 참 기구한 운명을 겪었다. 엄익근 선생이 중국으로 가 광복군에 가입하자 아내는 자식(1남 1녀)을 데리고 남편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아내는 넓은 중국 땅에서 남편을 찾다가 병을 얻고 결국 어린 자식만 남기고 숨졌다. 엄익근 선생은 해방 후 귀국해 재혼했고, 고아가 된 자식은 하얼빈에서 힘들게 자라 아들은 3형제를 낳았다. 이 3형제는 자신이 조선독립운동가 엄익근 선생의 손자라는 것을 입증하느라 무던히 노력했다. 중국 정부도 이를 인정했지만, 우리 보훈처는 '중국 기록은 믿을 수 없다'고 거부했다.

2005년 필자가 중국 취재차 갔을 때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기사를 썼다. 당시 동행한 김자동 임정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이 취재 통역을 맡아주셨다. 다행히 2007년 보훈처는 이 기사



4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후손 장학금 전달식에서 주최측과 심사위원, 참석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등을 참고해 손자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진짜' 독립운동가 후손은 우리 보훈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게다가 이들은 엄익근 선생의 후손임을 인정됐지만 호적은 정리되지 않았다(최근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 3형제 모두 국내에 영구 정착했는데 생활이 어렵다. 그 엄익근 선생 증손녀가 이번에 장학생으로 선발됐고, 장학금 시상식장에서 학생 대표로 답사까지 했다.

필자가 장학생을 선발하는 두 번째 기준은 서훈을 늦게 받아 보훈 혜택을 조금밖에 받지 못했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족이다. 이런 사람 중에는 사회주의 활동을 이유로 서훈이 늦어진 사람이 많다. 사회주의 활동가에 대한 서훈은 문민정부 이후, 특히 노무현 정부부터 본격화됐기 때문에 정부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이들 상당수는 해방후, 한국전쟁 전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많다.

신현 선생의 외증손이 그 대표적 사례다. 신현 선생은 전북 부안에서 임정 자금을 모아 전달하다 1920년 검거됐다. 1년6개월형을 받고 전주형무소에서 복역 후 출감했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31세로 숨졌다. 그에게 불과 네 살짜리 외동딸이 있었고 아이는 친정에서 키워졌다. 그리고 같은 마을에서 독립운동가로 역시 고문후유증으로 사망한 집안의 아들(최만호)과 결혼했다. 이 집안은 사회주의 활동을 이유로 아직 서훈을 받지 못했고, 특히 시동생은 해방후 피살되는 아픔을 겪었다.



2016년 필자와 서영해의 손녀 스테파니가 할아버지가 숙소 겸 사무실로 썼던 파리 5구 호텔방을 찾았던 사진.

어린 나이에 독립운동으로 서로의 아버지를 여인 두 사람은 청상과부가 된 어머니와 장모를 모셨다. 그리고 이들은 4남 1녀를 낳았고, 아들은 광복회 활동, 딸은 평통사(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활동을 하다 결혼했고, 지금도 장기수후원회 활동을 하는 집안이다. 이 집안을 보면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의 어려운 역경이 고스란히 묻어있다. 그리고 아직 서훈조차 받지 못한 한과, 무엇보다 독립운동이 통일운동으로 이어지는 역사성까지 녹아있다.

독립운동을 한 세 번째 기준은 그래도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가진 학생이다. 임정로드 답사를 한 번이라도 가봤거나, 3·1절이나, 광복절 등 독립운동 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했던 학생, 최소한 국립현충원 비석을 닦는 자원봉사라도 한 학생을 우선 선발했다. 그것은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자존심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이번 독립운동가 후손 장학생 선발에서 기억나는 사람은 한국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한 무역회사 '이룡양행'의 조지 루이스 쇼(George Lewis Shaw),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한 나석주 의사, 뤼순(여순)감옥에서 15년 복역한 박희광 지사, 전주에서 3·1만세운동을 이끈 여성독립운동가 최요한나 등이 있다. 필자는 정부가 보상하지 못한 독립운동가 후손에게 작지만 큰 장학금으로 위로할 수 있어 기뻐다. 

## 홍면옥의 3·1운동과 서대문형무소 47

홍면옥(洪冕玉, 이명 홍면(洪冕), 1884~?)은 송산면 사강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사강리에서 3·1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 지역은 일반적으로 3월 26부터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3·1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20년 6월 1일 발행된 《동아일보》 3면 〈수원사건공소판결〉에 대한 기사를 보면 3월 9일 송산면 사강리 구장 홍효선이 동네 사람 120여 명과 독립운동 결의를 하였다는 것, 홍면옥이 3월 11일 발행된 《매일신보》를 통하여 서울의 만세소식을 접하고 시위운동을 주도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이미 3월 초부터 사강리에서는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면옥은 3월 25일 동네 사람들을 모아 송산면사무소에서 만세를 부르고 시위운동을 하였다. 28일은 사강리 장날이었다. 홍면옥은 홍효선 등 지역 주민들과 함께 3월 28일 오전 10시~11시 사강장터 등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이끌었다. 그리고 오후 2시경 송산면사무소 뒷산 및 부근에서 다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때 시위군중은 1,000여 명이나 되었다.

시위 군중들이 태극기를 높이 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운동이 확산되자 수원경찰서에서 송산으로 출장을 나와 있던 순사부장 노구치(野口)와 순사 다케우치(竹内)가 제지하고 해산을 명하였으나 시위대는 듣지 않았다. 노구치가 홍



면옥 등 3명을 체포하자, 홍면옥은 홀연히 일어나서 만세를 불렀다. 노구치는 들고 있던

육혈포 총으로 홍면옥의 등을 쏘았다. 이에 홍면옥의 동생 홍준옥이 소리를 지르며 노구치가 사람을 죽였으니 저놈을 때려죽이라고 외쳤다. 분노한 군중들은 도망치는 노구치 순사를 뒤쫓아 가 돌을 던져 그를 자전거에서 떨어뜨렸다. 그리고 수백 명의 주민들이 돌과 몽둥이로 가격하여 그 자리에서 노구치를 처단했다.

홍면옥은 어깨에 부상을 당한 채 체포되었다. 일제는 다음날부터 닥치는 대로 마을 사람들을 잡아가 수원경찰서는 만원이 되었다. 잡혀간 사람들에게는 고문이 계속되었는데 고문에 죽은 사람들도 발생하였다. 홍면옥의 장인 김명제는 고문을 받으면서 “나의 사위가 권총에 맞았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우리는 원수를 갚기 위해 가담한 것이다.” 라며 당당히 맞섰다.

홍면옥은 보안법 위반과 살인죄가 적용되어 1920년 징역 15년을 언도받고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어, 10년의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송산면 육일리에서 학생들에게 한문과 애국가를 가르치는 등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그의 항일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 21세기 대한민국의 독립정신 제2기 청년위원단의 다짐



최범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제2기 청년위원단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청년위원단 2기로 활동하게 된 최범준입니다. 저는 사업회가 주관하는 독립정신 답사에 두 차례 참가했습니다. 답사를 통해 선대가 남긴 발자취를 따라가 볼 수 있었습

니다. 답사를 가기 전까지 알고 있던 독립운동사는 영웅들의 무용담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독립운동사는 시대 속에서 자기를 고민하며 일상을 살아갔던 보통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교과서와 시험 밖에서 접하자 지금의 저와 비슷한 나이였을 그 시대의 청년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 세계의 강대국이었던 당시 일본에 대항하는 건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은 패망했고 우리는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대다수 보통 시민의 입장에서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대개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독립운동은 단순히 일본과 싸운 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게 독립운동이고 독립정신은 불

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정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방 후 분단과 전쟁을 겪었던 굴곡진 현대사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궈내며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선대의 희생과 기적 역시 독립정신의 연장선으로 이해됩니다.

그렇기에 독립운동과 독립정신은 과거에 있었던 무엇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젊음이 각 시대의 과제에 도전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듯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 청년들도 독립정신을 품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이 늘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이 한번의 젊은 나이를 어찌할 것인가”라는 한마디가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들을 ‘N포 세대’라고 부릅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걸로 시작해 경력, 집으로 확대됐고 지금은 꿈과 희망, 인간관계까지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오늘날 청년들을 ‘단군 이래 최고 스펙(Spec)’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가지 모두 오늘날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 ‘N포 세대’라 일컫는 무기력과 사회에 대한 분노,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이라는 가능성과 희망 사이에서 나아가야 할 길을 모른 채 방황하고 있

습니다.

비단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자체가 갈림길에 서 있는 듯합니다. 100년 역사를 보내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기 때문인지 시대전환, 대전환, 대변혁 같은 단어들을 일상에서 꽤나 자주 접하곤 합니다. 이런 단어들과 함께 저마다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하고 해법을 내놓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와 똑같은 의식 수준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생긴 당시를 넘어서는,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무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새로움을 추구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독립정신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오늘날, 선대들이 삶으로 구현하신 독립정신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오늘날 청년들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돼주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청년위원단 2기가 첫모임을 가지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독립운동을 전공 중인 청년, 회사에 다니는 와중에도 활동에 임하고자 하는 열의 넘치는 청년, 개인연구를 하고 있는 청년 등 살아온 이력은 다르지만, 독립정신을 오늘날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러시아 등 해외 현지답사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청년위원단 2

기는 온라인 답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비록 현재의 공기를 맛보고 직접 두 발로 밟아보지는 못하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독립정신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에 앞서 활동한 청년위원단 1기는 위원 모두가 협의를 거쳐 활동을 결정하고 행사가 있다면 가능한 모든 청년위원이 참석하는 등 함께 만들어가는 청년위원단을 지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함께 하며 각자 지닌 장점을 살리고 동료 를 넘어 친구로서 관계를 쌓고자 했던 1기 선배들의 노력을 저희 2기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위원들의 부족함은 너그려이 풀어 주시고 활동과 목소리에는 귀 기울여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를 버팀목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온 독립정신을 21세기에 맞게 재해석하고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활동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청년위원단 2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안의 독립운동 ; 동학농민혁명과 의병을 중심으로

편집부

기름진 들판과 울창한 산림, 탁 트인 바다와 너른 갯벌 그리고 실핏줄처럼 뻗은 개천들이 어우러진 부안(扶安)은 한반도에서 흔치 않은 너럭한 고장이다. 이중환(李重煥, 1690~1752)은 『택리지(擇里志)』에 “거기서는 땀나무와 조개 따위는 돈으로 사지 않아도 구할 수 있다”고 썼다.

환경과피 같은 개념은 듣도 보도 못하던 시절이다. 가뭄에 논밭이 마를지언정 바다와 갯벌이 마를 리 없다. 조기 파시(波市)로 유명했던 칠산바다가 바로 변산 앞바다이고, 새만금 간척사업 전까지 백합과 바지락은 부안이 으뜸이었다. 기근이 들면 하늘을 원망하던 다른 고장과 달리, 부안의 백성은 굶어 죽을 걱정은 덜했다. 그래서일까. 부안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

### “부안에 살겠습니다(生居扶安)”

대궐로 돌아온 어사 박문수(朴文秀, 1691~1756)에게 임금 영조(英祖, 재위 1724~1776)가 ‘조선 팔도에서 어디가 제일 살기 좋더냐’고 넌지시 물었다. ‘물고기, 소금, 땀나무(魚鹽柴草)가 풍족해 부모 모시기에 모자람이 없으니 부안

에 살겠습니다(生居扶安)’는 게 박문수의 대답이었다. 실은 박문수는 전라도에서 어사 노릇을 한 적이 없고, 영조와 이 문답은 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도 나오지 않는다. 우리 고장이 최고라는 전승 설화(說話)쯤으로 받아들여지면 되겠다.

안타까운 것은 너럭한 고장일수록 선정(善政)이 드물었다는 사실이다. 뜯어먹을 게 많은 고장이니 엽관(獵官)에 많은 돈이 들었나 보다. 수탈과 탐학이 극심했다. 요즘으로 치면 관급공사비 횡령까지 등장했다.

변산에는 질 좋은 소나무가 많고, 동진·만경평야가 지척이다. 토호들은 사포와 짜고 세곡(稅穀)을 나르는 조운선(漕運船) 건조 사업을 따냈다. 노임을 떼어먹으니 백성은 허리가 휘고, 자재를 잘라먹으니 배는 바다에 가라앉기 일쑤였다. 실록(선조 6년)에도 실린 일이다.

지배층이 파렴치하면 현자(賢者)는 자취를 감춘다. 이중환은 “변산에는 산이 많은데 큰 산 밑에는 큰 마을을 이룰 만하고 작은 마을에는 고사(高士)가 숨어 살 만하다”고 썼는데, 실제로 그런이가 숨어 살았다.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은 현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에 살며 『반계수록

(磻溪隨錄)』을 썼다. 그의 호(號) 반계(磻溪)는 이 마을을 가로질러 흐르는 냇물 이름이다.

유형원이 두 살 때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옥사했고, 스물일곱 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과거를 접고 부안에 웅크린 그는 생선과 게와 젓갈로 차린 제철 밥상을 대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전에는 가세가 빈한해 좋은 음식을 올리지 못했는데, 지금 이것이 있으나 누구에게 드리랴...’ 유형원은 철마다 곡식과 해물을 도성에 사는 누이에게 보내며, 어머니를 그리워했다고 한다.

조선 후기 삼정문란(三政紊亂)에 시달리던 백성은 열에 셋은 유민(流民) 신세나 다를 바 없게 되었다. 부안은 달랐다. 삶이 고되기는 마찬가지였으나 고향을 등지지 않고서는 입에 풀칠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괄괄한 패들은 공간을 털거나 군적(軍籍)을 사르고 변산 깊숙이 파리를 틀었다. 백제 부흥을 꿈꾼 세력이 끝까지 항거한 곳이 바로 변산이다. 부안사람들은 현 부안군 상서면의 우금산성이 백제부흥운동의 본거지인 주류성이 있던 곳이라고 믿는다.

조정은 부안이 다스리기 만만한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실록 영조 5년 2월 25일 기사에는 ‘부안은 땅이 넓고 백성이 많은데다, 역도들이 변산에 숨어 소란’이라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어염시초(魚鹽柴草)가 풍족한 부안의 지세가 백성의 분기(奮起)를 막았다. 가렴주구는 쌓였으나 백성은 좀처럼 일어서

려 하지 않았다. 서세(西勢)가 밀려오고 동학(東學)을 만나면서 민중의 원념(怨念)은 비로소 분출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부안의 독립운동은 갑오농민전쟁을 빼놓고서는 말할 수 없다.

### 앞으면 죽산(竹山), 서면 백산(白山)

1894년(고종 31) 음력 정월, 고부 농민 1천여 명이 전봉준(全琫準, 1855~1895)의 지휘로 관아를 점령했다. 이어 전봉준은 부안 남쪽의 무장현(茂長縣, 현 고창군 무장면 등 7개 면)에서 손화중(孫化中, 1861~1895)과 연합해 무장기포(茂長起包)를 단행하고, 호남의 동학도와 농민에게 백산(白山)에 모이자고 호소했다.

백산은 현 부안군 백산면에 있는 야산으로 높이가 해발 50m도 안 되지만, 이 일대가 우리나라에서 지평선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지형(동진·만경평야)이라 사방 수십 리의 동태를 능히 감시할 수 있는 곳이다.

죽창을 들고 흰옷을 입은 수천의 농민군이 백산에 운집했다. “앞으면 죽산(竹山), 서면 백산(白山)”이라는 말의 유래다.

농민군은 백산대회에서 호남창의(湖南倡義)의 가치를 내걸고, ▲사람을 죽이지 말고 재물을 손상하지 말 것 ▲충효를 다하여 제세안민(濟世安民)할 것 ▲왜적을 축멸(逐滅)하여 성도(聖道)를 밝힐 것 ▲군대를 이끌고 도성을 점령해 권귀(權貴)를 모두 죽일 것 등 4대 강령을 선포했다.

부안의 동학도를 이끈 주역은 김낙철(金洛

喆)·김낙봉(金洛鳳) 형제로, 교도가 수천에 달했다고 한다. 2대 동학교주 최시형(崔時亨, 1827~1898)은 1891년 이들 형제와 만나 동학이 “부안에서 꽃을 피우고, 부안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부안은 동학과 밀접한 핵심 지역이었다. 부안집주 김영조(일명 김석윤)는 1983년 광화문 상소(上疏)에 참여한 바 있다.

이들은 처음에는 전봉준·손화중과 합세하기를 꾀했으나, 백산대회 이후 부안읍성을 장악하고 무기를 빼앗아 무장하니 그 세력이 약 1만이 었다.

세력이 수만으로 불어난 농민군은 황토현(현 정읍시 이평면)에서 관군을 물리치고 전주성을 점령했다. 관군 기록에, 순천과 광주의 농민군 수천이 부안 줄포에 들어와서 끼니를 해결하고 합류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부안은 농민군 주력의 하나였고, 가장 든든한 보급창고였던 셈이다.

왕실과 조정이 외세를 불러들이면서 동학농민혁명은 반외세 구국운동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외세 개입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조정과 전주 화약을 맺었지만 약속받은 폐정개혁은 시행되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일본군이 경북공을 점령하자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은 다시 봉기했다.

비록 죽창은 신식 화기의 상대가 되지 못했으나, 우금치전투에서 피를 뿌린 농민군이야말로 이 땅의 첫 번째 독립군이자 첫 번째 시민군이 었다.

갑오농민전쟁 즉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인 전

북, 그중에서도 기포(起包)의 주력이 된 고부·무장·부안 세 고장의 농민이 치른 희생은 막심했다(부안에서는 30여 명이 붙들려 12명이 총살 당했는데, 학계의 연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 되면 이 숫자는 수십 배 늘어날 것이다).

그 결과, 을미년(1895)부터 갑진년(1904)에 이르는 10년 동안의 전기(前期) 의병에 전북은 힘을 내지 못했다. 학계에서는 그 이유를 ‘전북지역은 동학농민혁명의 진원지로서 격동의 소용돌이를 겪었기에 의병 봉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한다.

전북 의병은 을사년 다음 해인 1906년 태인(泰仁義陳)을 필두로 거병했다. 일제는 1909년 9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호남지역에서 ‘남한폭도대토벌작전’이라는 초토화 만행을 저질렀다.

우리 고장의 독립운동을 국가유공자 수로 되짚는다는 건 심히 송구하고 민망한 일이나, 2020년 11월 현재 부안 출신 독립유공자는 모두 48인으로 이 가운데 의병이 29인으로 절반이 훌쩍 넘는데, 모두 이 시기에 항거한 분들이다.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김철수, 삼의사 백정기**

동학농민혁명과 의병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일제강점기 부안의 독립운동 연구는 아직 답보 상태다.

부안의 백산·동진면은 일제의 미곡 수탈 거점 이었고, 조선공산당 책임비서를 역임한 김철수

(金綴洙, 1893~1986)의 고향이기도 한 백산면 원천리는 일제 고등계가 ‘공산주의자의 소굴’이라며 진절머리를 쳤을 정도였다. 소작쟁의와 적색 농민조합이라는 투-트랙으로 움직인 농민운동의 활동상을 밝히는 연구가 시급하다.

부안이 낳은 걸출한 독립운동가로는 김철수와 백정기(白貞基, 1896~1934)가 꼽힌다.

김철수는 동경 유학 중 신아동맹단(新亞同盟團)을 결성해 항일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초기 공산주의운동을 이끈 대표적 지도자로, 1920년



김철수

사회혁명당을 창당하고, 1921년 이동휘, 박진순 등과 함께 상해에서 고려공산당대표회의를 조직해 고려공산당 중앙위원에 선출되었다.

1925년 조선공산당에 입당, 1926년 제3차 조선공산당 책임비서를 맡아 좌우합작 독립운동단체 신간회 결성에 큰 역할을 했다. 1930년 투옥되어 해방 때까지 15년이나 옥고를 치렀다.

백정기는 동진면 하장리에서 태어나 7세 때 정읍으로 이주했다. 3·1운동에 참여하고 만주 봉

천으로 망명했다. 북경에서 이회영·신채호·정화암 등을 만나 아나키즘에 입문해, ‘절대자유’, 와 ‘평등사회’ 건설을 모토로 가장 비타협적인 독



백정기

립운동의 길을 걸었다. 1925년 상해 5·30 총파업 당시 중국인 아나키스트들과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농촌 자치운동에도 가담했다.

1931년 극동 3국 아나키스트들과 함께 일제 기관 파괴·요인 암살·친일파 숙청 등을 결행하는 흑색공포단을 조직하고, 이회영 등과 함께 남화한인청년연맹을 결성했다. 1933년 주중일본공사 아리요시를 처단하려다 체포되어 무기형을 선고받고 옥중에서 순국했다. 효창원 백범묘역 아래 삼의사묘에 이봉창·윤봉길 의사와 잠들어 있다. ㉸

### 『길 위에서 만난 독립운동가』

• 지은이 : 김학천 | • 그림 : 황은관 | • 출판사 : 선율



“조국을 위해 자신을 내어던진 뜨거운 청년들,  
길 위에 남겨진 그들의 숨결을 느끼다”

이 책은 중학교 역사 교사이자 문화유산해설사인 저자가 지난 10여 년 동안 직접 답사하고 안내, 강의했던 ‘독립운동가의 길’을 추려 16명의 독립운동가를 정리하고 소개한 책이다. 저자는 한 사람 독립운동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가치관이 담긴 ‘생가’와 치열하게 살아간 삶의 궤적을 살펴보는 ‘기념관’과 ‘유적지’, 그리고 남들과 다르게 살아갔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는 ‘묘소’를 찾아가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인물의 생애와 삶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저서에 다룬 16곳은 서울 남산 안중근 의사 기념관(안중근), 양평 몽양 여운형 생가기념관(여운형), 서울 경교장·효창공원 백범 김구 기념관(김구), 밀양 의열기념관(김원봉), 서울 강북 봉황각·종로 천도교중앙대교당(손병희), 서울 성북동 심우장·북정마을(한용운), 안동 임청각·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이상룡), 서천 이상재 선생 생가·기념관(이상재), 서울 정동·양화진의국인선교사묘원(헬버트), 서울 도산공원 안창호 기념관·서대문형무소(안창호), 서울 종로 김마리아 길·정신여고(김마리아), 대구 264작은문학관·삼덕교회 대구형무소 터(이육사),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지(스코필드), 경주 교촌 최부자집·총의당(최준), 서울 유한양행 기념관·유한대학교 기념홀(유일한), 광주 수피아여중교·소심당조아라기념관(조아라)이다. 여기에 영화 포스터 같은 일러스트를 더해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한 독립운동가의 삶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기획했다. 그림을 맡은 황은관 작가는 인상적인 색과 선으로 독립운동가들을 선명하게 표현해 주었다.

### 『삼국지』

• 지은이 : 나관중 | • 역은이 : 신복룡 | • 출판사 : 집문당



『삼국지』는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알려지고 읽힌 중국 고전이다. 현재까지 약 400여 종의 『삼국지』가 출판된 것은, 그만큼 이 고전이 한국인 삶에 가깝고 밀접하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을 통해 역자는 철저히 원본에 맞춘 삼국지임을 자부한다. 즉, 이 책의 장점은 미묘한 원전 속의 표현을 최대한 살리면서 우리말로 옮기는 데 주력했다는 점이다. 전문을 온전히 옮기고, 고사성어를 포함해 1,000개가 넘는 주석을 달았다는 점은 다른 삼국지와는 큰 차별점이다. 역자가 “내 장년 30년에 걸친 삼국지 주석은 내 인생의 한 부분이며 내가 살아 온 흔적으로 후세에 남기고 싶다”고 전한 것처럼, 책 속에는 열정과 섬세함이 함께 녹여져 있다.

### 『나의 독립』 - 독립운동가의 시와 말씀을 글씨로 보다

• 지은이 : 강병인 | • 출판사 : 글꼴



“남의 삶을 살 것인가, 독립된 존재로 살 것인가, 독립운동가의  
생애와 말씀으로 이루어진 한 권의 철학서이자 인문교양서”

이 책은 독립운동가의 시와 말씀 서른네 점을 저자인 글씨예술가 강병인이 작품으로 옮기고 설명한 책이다. 작가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의 시와 말씀을 글씨로 옮겨 순회 전시를 개최했다. 이때 전시했던 약 서른 점의 시와 말씀을 작품으로 옮기는 과정을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다.

글씨의 힘은 무엇일까. 글이 가진 뜻을 보이고 들리게 하는 것, 이것이 글씨의 힘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책에서는 시와 말씀을 글씨로 옮기기 전 독립운동가의 삶을 살펴보고 글씨를 쓸 때의 감정과 작품에 임했던 태도, 작품 속에 담고자 한 의미 등을 되짚었다. 무엇보다 시와 말씀 속에 들어 있는 뜻과 글자와의 관계, 글자의 구조 등을 살피고, 제자원리에 따른 한글 쓰기의 방법론을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세세하게 풀어 놓았다. 시와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글씨가 일어나 말을 걸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글꼴과 구도를 작품마다 다르게 하고 입체성과 심미성을 살리는 등, 한글서예의 새로운 조형을 찾는 실험과 탐구 과정이 그려져 있다.

### 『항일여성기록』

• 지은이 : 신영숙 | • 출판사 : 들림북스



이 책은 근대사회 여성들의 삶을 조명하고, 식민지라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주체적으로 저항했던 여성들의 역사를 정리한 책이다.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인 저자는 한국근대여성사의 최고 전문가다. 지난 2004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동원 조사에 힘썼고 현재도 근대 한국 여성의 주체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 중이다.

저자는 한국 사회의 근대화가 유감스럽게도 일제의 강점으로 인한 식민지화로 곧 두박질침으로써 서구의 문물이 일본을 거쳐서 식민지 조선으로 유입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때문에 사회문화적 질곡과 왜곡을 심하게 겪었고 그 피해의 전면에 여성들이 바람막이가 되기도 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여성들은 이 시기에 피해만 당한 것이 아니라 곤경과 시련을 딛고 항일투쟁에 앞장섰고 오늘날 남성과 함께 한국 사회의 변명과 평화를 이뤄낸 주인공이라고 설명했다. 이 책은 당시 여성들의 삶과 투쟁을 그려낸 근대 여성의 주체성을 밝히고자 했다.

정경모 선생 시민 조문 방문



지난 3월 31일 '마지막 망명객' 정경모 선생님의 시민 조문이 있었습니다. 정경모 선생은 통일운동가이자 문필가로 1970년 박정희 군사독재에 반대해 일본으로 건너가 73년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사건 때 구명운동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김지하 시인 석방운동 등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서 조화를 전달, 3월 31일에 시민 조문에 방문했습니다.

1989년 3월 말 문익환(1918~94) 목사와 함께 방북한 고인은 김일성 주석을 만난 뒤 허담 조국평화통일위원장과 4·2공동성명의 초안을 작성해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문 목사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고인의 귀국길도 막혔습니다. 정경모 선생님의 시민 조문은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2일 마석 모란공원에서 봉안식이 열렸습니다.

2021 정례학술회의 개최



4월 9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주관, 국가보훈처·광복회·시민모임 독립의 후원으로 열린 2021년 정례 학술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학술회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청중 없이 진행되었고 이후 학술회의 전체 영상은 사업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회의 주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는 오는 11월 완공 예정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어떻게 하면 양질의 구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논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강일기』, 『영원한 임시정부 소년』 일본어판 출판기념회 개최



일본 히토츠바시 대학에서 일본어판 『장강일기』, 『영원한 임시정부 소년』 출판기념회를 4월 10일 줌(ZOOM) 화상회의로 1시간 30분 동안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페밀리 히스토리로 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억'이며, 줌으로 약 40여 명의 한·일 국적의 참가자와 함께 출판기념회를 가졌습니다.

회의는 이규수 히토츠바시 대학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주제 발표는 강신자 작가, 송연옥 교수, 와타나베 나오키 교수가 맡았습니다.

이날 김자동 회장께서 기조연설로 두 책에 대한 간략한 말씀과 어머니 정정화 선생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기억도 간략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맺음말로 김선현 본 사업회 이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사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2주년 기념식



2021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2주기를 맞아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이라는 주제로 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기념식에는 생존 애국지사 두 분을 포함한 독립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등 90여 분이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김선현 이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제인 1949년에 발행한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은 독립운동가이자 문학인 심훈 선생님의 유고 작품집 『그날이 오면』의 표제시 <그날이 오면>의 첫 구절입니다. 이날 연설을 한 정세균 총리는 조소앙 선생의 삼균주의를 언급했습니다. 정 총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회는 정치, 교육, 경제의 권리를 균등히 하여 서로 차이가 없게 해야 함을 천명했다"면서 "이것이 바로 건국 정신"이라고 강조, "하지만, 아직 삼균주의

의 세상은 요원하다”며 “정치와 교육, 경제가 균등한 세상, 선열들께서 못다 이룬 꿈을 현실의 역사로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고 발언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기 청년위원단 발족**



4월 12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기 청년위원단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오후 청년위원단과 활동 오리엔테이션을 열어 앞으로 청년위원으로 활동할 내용을 설명하고 청년위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2기 청년위원은 총 4명으로, 최범준, 배현서, 손창현, 임다빈 위원입니다.

2기 청년위원단은 이날 오리엔테이션으로부터 1년간 온라인답사, 「독립정신」 원고 작성, SNS 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우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홍보할 것입니다. 앞으로 1년간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

회 청년위원단으로 활동할 청년위원들께 아낌없는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복회 「월간 순국」 편집부,  
김자동 회장 인터뷰**



김자동 회장께서 4월 13일 광복회의 월간 순국 편집부와 「월간 순국」 사전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김 회장께서는 ‘순국 특별 초대석 - 만나고 싶었습니다’란 섹션으로 약 1시간 동안 인터뷰를 진행하셨습니다.

인터뷰로 11월 완공 예정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대한 소감, 4월 11일 수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의와 계승해야 할 정신, 대한민국 임시정부 생활에서의 기억과 어머니 정정화 선생님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간 순국」 편집부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혹은 후대에 대한 조언을 물었고, 김자동 회장께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뜻은 통합이고, 평화 통일이 이뤄져야 할 당위와 그 의미를 전해주셨습니다.

**본회 회원들,  
동학농민혁명 서훈 촉구**



본 사업회 김자동 회장과 회원분들이 참여한 전봉준·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촉구 성명이 4월 발표됐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촉구는 지난 회보 임정서가에 실린 『전봉준 최시형 독립유공 서훈의 정당성』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박덕진 전 사무국장 중심의 사단법인 ‘바로선누리’와 국회의원 우원식, 성일중, 강민정, 이성만 등이 공동주최하는 학술회의 <전봉준·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의 당위>가 5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립니다. 여기서 성일중 의원은 서훈촉구결의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합니다. 『전봉준 최시형 독립유공 서훈의 정당성』의 저자 박용규 교수도 이번 학술회의에서 발표를 맡았습니다.

김자동 회장을 비롯 이종찬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장, 차영조 독립유공자유족회 부회장, 임재경 본회 부회장 등 본회의 회원분들도 성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배성호 회원,  
4·19혁명 관련 원고 회원들과 공유**



배성호 회원께서 4월 19일, 어린이 잡지 「개똥이네 놀이터」 2021년 4월호에 연재한 4·19혁명 내용을 회원들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배성호 회원께서는 현직 교사이자 전국초등사회교과모임 공동대표로, 이번 4월 9일 본회 주최 2021 정례 학술회의에서 제3토론을 맡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회원께서는 “초등학생도 함께 참여해 바뀌는 우리 역사를 과거 회고적 시점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열어가는 마중물로 다시 새기면 좋겠다”며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를 뒤인 4월 21일에는 지난 2018년 김자동 회장과 인터뷰를 학생들과 함께 관람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유튜브에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태어난 ‘김자동’ 선생님 어린 시절 이야기>라는 제목의 게시영상을 통해 확인





## 입회원서 및 CMS 자동납입 신청서

이름			연락처 (휴대폰)		
주민번호					
주소					
e-mail					
은행명	은행	이체희망일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계좌번호					
납부금액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20만원 <input type="checkbox"/>	자유지정금액 (            )			

본인은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 납부하신 회비는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1월에 발행하며 연말정산에 경상비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본회 후원 계좌 : (국민은행) 813001-04-010309

## 반인권적이고 반평화적이며 반역사적인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1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2차 소송 판결)을 선고하였다. 불과 석 달 전인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정근, 1차 소송 판결)가 또 다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국의 손해배상판결을 선고한 것과 너무도 다른 판결에 원고인 피해당사자들은 절망하고 온 국민은 충격을 받았다. 당시 재판정에 있던 이용수님은 떨리는 심정을 가누지 못해 중간에 자리를 떠며 한마디로 '황당하다'고 일갈하셨다.

재판부는 일본국의 위법적 주권도 주권적 행위니 대한민국 법원에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박근혜 정권의 '2015 한일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국의 권리구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익'과 '외교적 충돌' 운운하면서 국가면제 이론 뒤에 숨어 민성철 재판장이 진정 하고 싶은 이야기는 '2015 한일합의'로 다 해결되었으니 '입 다물라'는 것이었다. 더 황당한 것은 무력 분쟁 시 발생한 행위는 가장 강력한 주권적 행위이므로 아무리 심각한 반인도적인 인권 침해라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인권과 인간에 대한 참으로 처참한 인식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민성철 재판부는 전시 성폭력과 성노예제

라는 여성들의 처참한 경험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커녕, 30여년간 전 세계를 누비며 진실과 평화를 외쳐 온 피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인권의 가치를 처참히 짓밟았다. 피해자 개인 위에 가해자 국가를, 보편적 인권 위에 위법적 행위를, 한 국가의 주권 위에 패권국가의 논리를 올려놓았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 쌓아 올린 정의의 탑을 무너뜨리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파기하면서까지 "2015 한일합의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망언을 일삼아 온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정의연은 대한민국 역사뿐 아니라 세계 인권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기억될 민성철 재판부의 반인권적이고 반평화적이며 반역사적인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굴하지 않고 역사적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일어설 것이다. 당당한 법적 주체로서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유족들과 논의해 항소를 진행할 것이다. 일본정부가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법적 배상과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실행하는 그날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1년 4월 23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Yeoro Concert Series 17  
제3회 여로 창작 합창제  
with Seoul Youth Choir

지휘자 김찬희가

지휘자 윤선영이

지휘자 조원주가

반주자 박영서가

작곡가 강상인이

작곡가 강한미가

작곡가 김한별이

작곡가 박소현이

작곡가 심현호가

작곡가 양은철이

작곡가 이상준이

작곡가 이승아가

작곡가 이윤상이

작곡가 정재민이

작곡가 정현아가

작곡가 정현우가

# 원동주들로 말하다

2021. 06. 07 (월) 19:30

영산아트홀



9 772586 469007  
ISSN 2586-4696



영남  
시립문화재단

클래시안

이 공연은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클래식안의 지원을 받아 제작 되었습니다.